[論 文]

# 서울 石村洞 百濟土壙墓 出土 漆器

## ——中國 漆器와의 關係——

林 永 珍
(全南大史學科)

目 次

Ⅰ. 머 리 말
Ⅱ. 石村洞 土壙墓 出土 漆器
1. 漆器 出土 遺構
2. 漆器
Ⅲ. 中國 漆器와의 關係
1. 中國 漆器의 起源과 變遷 槪要
2. 石村洞 土壙墓 出土 漆器의 性格
Ⅳ. 맺 음 말

## Ⅰ. 머 리 말

우리나라에서 古代 漆器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10年代 이후 平壤 一帶의 木槨墳 발굴을 통해서였으며, 그 후 金鈴塚·飾履塚·壺杅塚·銀鈴塚 등 新羅古墳에서도 계속 발견되었다. 樂浪 木槨墳에서 발굴된 많은 양의 칠기는 중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多種·多樣한 것들로서 막연하게나마 칠기의 국내 보급이 漢의 樂浪郡 설치를 계기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하였고, 뒤에서 언급되듯이 최근 서울 石村洞 土壙墓에서 발굴된 칠기 역시 樂浪의 전형적인 耳杯·盤·盌 등과 통하고 있어서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러나 樂浪漆器 이후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다고 여겨지는 石村洞出土 漆器는 施文방법이나 文樣形態에 있어 中國·樂浪 漆器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기원전 1세기 후반의 樂浪初期와 평행하는 義昌 茶戶里 木棺墓에서 발굴된 漆器[1] 역시 器種 등 여러면에서 漢代 칠기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 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칠기의 기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군다나 樂浪漆器 이전에 해당하는 牙山 南城里 石棺墓에서 발견된 漆片[2]은 우리나라에서의 옻漆 사용이 이미 서기전 3세기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漆器의 國內 확산·보급이 아닌, 칠기의 起源에 관한 한 樂浪과는 無關함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本稿에서는 漆器 起源에 관한 이와같은 문제점 속에서 石村洞 土壙墓 出土 漆器의 성격과 年代問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漆器와 中國 漆器와의 관계에 대해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李健茂, 「義昌茶戶里遺跡발굴조사개보」, 박물관신문 202호, 1988.6.1.
2) 韓炳三·李健茂, 『南城里 石棺墓』, 國博古蹟調査報告 10册, 1977. p.5.
이곳 漆片은 成分分析까지 이루어져 樂浪漆器와는 다른것임이 밝혀졌다.

# Ⅱ. 石村洞 土壙墓 出土 漆器

本 漆器는 1986년도에 발굴된 서울시 松坡區所在 '石村洞3号墳 동쪽古墳群'의 大形土壙墓(土壙木棺墓)에서 출토된 것인데, 그동안 文化財硏究所 保存科學室에서 약 15개월에 걸친 정밀 작업을 통해 復元 및 保存處理를 끝내게 되었다.

古墳群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미 보고된 바 있지만,[3] 칠기가 출토된 木棺은 토기 2點을 제외하고는 내용물을 완전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레탄으로 포장하여 들어낸 다음, 文化財硏究所 保存科學室에 保存處理作業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漆器에 대해서는 발굴보고서에 수록하지 못하였다.

## 1. 漆器出土遺構(그림 1~6, 사진 1·2)

漆器가 출토된 大形土壙墓는 石村洞3号墳 東端에서 약 45m 가량 떨어진 B地域 E5區의 最下層에서 조사된 것인데(그림 1·2), 이 지역에는 下層에서부터 中層까지 土壙墓·甕棺墓·葺石封土墳이 있고 上層에는 破壞積石塚과 石槨墓가 분포되어 있다(그림 3).

이 지역의 발굴은 百濟古墳路에 면한 最南端 斷崖面쪽에 설치한 폭 2m의 東西試掘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試掘坑을 통해서 上層의 破壞積石塚 下部에 土壙墓(3号土壙墓)가 위치해 있음이 확인되었고, 破壞積石塚의 범위 확인을 위한 南北試掘坑에서 다시 이 積石塚 下部에 또 다른 土壙墓(1号·2号土壙墓)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그림 3). 이에따라 破壞積石塚이 土壙墓 群集地域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積石塚에 대한 全面發掘을 끝낸다음(上層), 그 하부 토광묘에 대한 발굴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3·4·5号土壙墓를 조사할 수 있었고(中層), 다시 그 下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積石施設이 일정한 범위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함께 1·2号土壙墓를 조사하게 되었다(下層).

이 下層의 積石施設(第1積石)은 上層의 破壞積石塚보다 0.6~0.7m 아래(表土下 0.8m內外)에 위치해 있고, 그 범위는 길이 6.2m, 폭 1.5~4.2m 인데 그 주변은 黃褐色粘土生土層이고 積石部는 전반적으로 陷沒되어 있었다. 第1積石의 북쪽 끝에서는 서쪽으로 100°가량 꺾이면서 다시 길이 5.9m, 폭 1.0~1.7m 크기의 積石施設(第2積石)이 이어지고 있는데(그림 4), 이 두 積石은 거의 斷切됨이 없이 ㄱ字로 이어지는듯 하지만 꺾이는 부분이 서로 20cm 가량 떨어져 있고, 第1積石 上部의 木炭面을 추적한 결과 이 木炭面 上部에 第2積石이 있어서, 層位的으로 第2積石이 後行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第2積石을 정리한 다음 第1積石을 조사하였는데 積石 사이에 木炭과 함께 수많은 土器片·刀子·鐵釘·꺾쇠 등이 산포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陷沒되어 있는 南北방향의 積石 중간 중간에 다시 東西방향으로 소규모 陷沒部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陷沒部는

3) 金元龍·林永珍, 『石村洞3号墳동쪽古墳群 整理調査報告』, 서울大學校考古人類學叢刊 第12冊, 서울大學校博物館, 1986.12.

대개 길이 2~2.5m, 폭 0.5~0.7m 규모로서 小形 木棺의 크기와 비슷해서 그 하부에는 木棺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소규모 함몰부를 중심으로 部分發掘을 진행하였다. 이 過程에서 함몰부와 함몰부 사이의 壁 역시 함몰부와 마찬가지로 일단 파낸 다음 다시 埋土한 것임이 확인되었는데 이 사실은 第1積石部가 전체적으로 陷沒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第1積石 下部 全體가 커다란 土壙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소규모 함몰부에 대한 발굴을 일단 보류하고 第1積石部 주위에 나타난 粘土生土層을 따라 전체 윤곽 확인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第1積石 하부에는 大形土壙이 만들어져 있음이 판명되었고 그 내부에서는 8개의 木棺 혹은 그 흔적이 조사되었다.

이 大形土壙은 이미 그 南端이 百濟古墳路 新設工事때 완전히 파괴되어 전체 규모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남아있는 부분만도 남북 길이 10m, 동서 폭 2.6~3.2m, 깊이 0.8m이고 그 안에는 8개의 埋葬主體部가 東西방향으로 並列되어 있었다. 이중 北쪽 끝의 1号는 木棺 흔적만 있고 나머지 2号~8号는 부분적인 腐蝕은 있지만 木棺이 남아 있는데 2号는 板材로 만든 木棺이 아니라 굵은 통나무에서 한쪽 껍질을 통째로 벗겨내 그 오목한 부분을 屍床으로 이용하였거나 통나무 약 1/4쪽 내부를 둥그렇게 파내고 만든 통나무널이다. 이들 8개 木棺은 모두 동시에 안치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個別土壙은 없고 하나의 大形土壙 바닥에 木棺들을 나란히 놓은 후, 그 사이에는 회청색 뻘흙 혹은 논흙과 같은 粘性이 강한 흙을 채워 다진 것이다. 그리고 나서 木棺 上部의 나머지 土壙 내부는 土壙을 만들 때 파낸 黃褐色粘土로 다시 채웠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20~50cm 크기의 割石을 2~3겹 덮었다(그림 5).

이 積石部 위의 封土 造成 여부에 관해서는 確斷을 내리기 힘드나 浸水防止가 주목적일 이 積石部를 그대로 노출시키지는 않았을 것이어서 그 위에 흙을 덮어 최소한 低平한 封土를 形成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 大形土壙의 긴쪽 壁에서 불과 3~4m 밖에 떨어지지 않은 葺石封土墳의 경우 높이 1m 남짓한 封土가 原狀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그림 4) 이 토광묘의 封土缺如는 처음부터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빠른 이 토광묘의 封土가 後期 墳墓의 造營時期에 削平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뭐라고 斷定하기 어렵다.

칠기가 출토된 5号木棺은 棺材가 原狀대로 남아있지는 않으나 腐蝕 흔적이나 棺을 둘러 쌓던 灰靑色 뻘흙의 높이 등으로 그 원형을 대강 알 수 있다. 그 크기는 길이 2.5~3.0m에 달하는 다른 木棺들에 비하면 작은 편이어서 전체 길이는 182cm에 불과하며, 폭은 양쪽이 같지 않고 약간 차이가 있어 넓은 쪽인 동쪽은 65cm이고 좁은 쪽인 서쪽은 55cm, 깊이는 30cm 내외이다. 木棺의 바닥에는 두 短壁에서 각각 32~35cm 정도씩 들어온 지점에 木棺 밑을 가로지르는 角木이 한개씩 있으며 그 兩端은 木棺밖으로 각각 20cm 가량 돌출하고 있다(그림 6). 이것은 木棺을 운반하거나 壙 안으로 내려 놓을 때 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木棺 내부에는 人骨이나 그 흔적이 전혀없이 東北·西南隅에서 土器 1點씩이 출토되었고,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서는 木心이 썩어 없어지고 皮膜만 남은 漆器 2點이, 西쪽에 치우쳐서는 역시 木心은 썩어 없어졌거나 거의 썩어버린 3點의 漆器 輪廓이 확인되었다. 이 부장품들의 수습에 있어서는 木棺 내부에 계속 지하수가 스며들고

또 진흙과 漆器가 뒤범벅이 된 상황이어서 現場에서의 細部確認이나 發掘 整理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文化財硏究所 保存科學室의 協力下에 木棺痕跡部를 포함하는 주변의 흙을 통째로 우레탄으로 포장하여 들어낸 다음 室內에서 정밀 처리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포장된 木棺을 文化財硏究所 保存科學室로 옮겨 정리한 결과 5點의 漆器와 채 腐蝕되지 않은 棺材一部를 수습하여 보존처리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 5點의 漆器는 木心部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다가 漆皮膜이 손상되거나 작은 파편으로 부서져서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하였다. 15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파편 하나 하나를 짜맞추고 보존 처리한 文化財硏究所 保存科學室 담당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이제 5點의 漆器에 대해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漆器

### (1) 漆器 ①(그림 7, 사진 3·4)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硬質土器 1點 및 다른 漆器 2點과 인접해서 출토되었다. 거의 부식된 木心은 內外面의 漆膜 사이에 일부만 남아 있고, 內面의 漆은 黑漆 바탕에 朱漆이 덧칠해져 文樣을 구성하는 한편 外面의 漆은 黑漆뿐이다. 발굴 당시에는 원형으로 돌아가는 口緣의 윤곽이 확인되었고(사진 2) 그에 따라 전체 직경이 40cm 내외로 추정되었는데 보존처리 과정에서는 전체를 펴서 유리판 사이에 고정시켰다(사진 3).

文樣은 중심점에서 반경 2.3cm 크기의 원형으로 뾰족한 끝이 圓心쪽으로 모아지는 鋸齒文帶가 있고, 그 끝에서 0.5cm 떨어져서 長方形文樣帶가 역시 圓形으로 돌고 있다. 各 長方形은 圓心쪽 幅이 약간 좁아진 사다리꼴이고 길이는 2.5cm이다. 그리고 두번째 文樣帶 끝에서 0.6cm 떨어져서 중심으로부터 5.9(안쪽)~8.6(바깥쪽)cm에 이르는 원형대 내부에 긴사다리꼴 형태의 무늬와 鋸齒文을 섞어놓은 文樣帶가 돌되 문양의 뾰족한 끝들은 圓周쪽을 향하고 있다. 이 第3文樣帶 끝에서는 다시 0.6cm 가량 떨어져서 2.5cm폭의 원형띠(중심으로부터의 반경은 9.2~11.7cm)안에 끝이 圓心을 향한 鋸齒文帶가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0.5cm 떨어져서 3.9~4.1cm 폭의 원형띠(중심으로부터의 반경은 12.2~16.2cm) 내부에 역시 끝이 圓心쪽을 향한 길다란 鋸齒文帶가 돌아가고 있다.

以上과 같은 5개의 文樣帶는 모두 鋸齒文帶 또는 끝이 잘린 鋸齒文帶라 할 수 있고, 이 施文部分이 그릇의 바닥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 文樣帶가 끝나는 곳에서 壁이 올라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가장 길게 남아있는 外緣部分이 4.7cm에 달하므로 그 길이가 그릇의 壁 높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결국 이 漆器는 바닥지름 32.4cm, 높이 4.7cm 가량되는 쟁반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香나무를 깎아 木心部를 만들고 그 內外面에 漆을 한 것이다. 漆은 朱漆部가 넓게 바탕면을 이루는데다가 黑漆部가 文樣帶를 구성하고 있어서 朱漆 바탕에 黑漆 문양을 시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그릇 내면 전체에 黑漆한 다음 鋸齒文 부분을 남겨두고 그 背景部를 朱漆함으로써 一見 朱漆 바탕에 黑漆 文樣帶를 넣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와같은 시문방법은 비현실적인 특이한 방법이라 생각되지만 木心이 없는 漆皮膜의 뒷면을 보면 黑漆 一色이고, 이 皮

膜을 빛에 비추어 보면 黑漆 부분은 얇아서 빛이 투과함으로써 褐色을 띠는데 반해 朱漆 부분은 두터워서 빛이 거의 투과하지 않기 때문에 朱漆 바탕에 黑漆 文樣帶를 넣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2) 漆器 ② (그림 8, 사진 5·6)

서남쪽 모서리의 硬質土器 아래에 놓여있던 것이다. 木心部는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위에 놓인 土器가 깨어지면서 漆皮膜이 크게 손상되었다. 현장 발굴시에는 전체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희미하게 윤곽이 드러났는데 보존처리 결과 한쪽이 결실되기는 하였으나 原形을 추측할 수 있었다. 남아있는 木心部가 전혀 없어서 정확한 형체는 알 수 없지만 漆膜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大同江面2号墳(貞柏里2号墳) 출토 漆盤(사진 7)[4]이나 王光墓 출토 漆盤(사진 5)[5]과 유사한, 구연부가 수평으로 꺾인 얕은 圓形盤이었다고 생각된다.

漆은 먼저 나무로 만든 그릇의 內外面에 黑褐色의 漆을 하고 內面의 黑褐色漆 위에 文樣 부분만 제외하고 朱漆함으로써 漆器①과 마찬가지로 朱漆 바탕에 黑褐色 文樣을 넣은 것처럼 보인다. 文樣은 현재 중심점에서 5.5(안쪽)~7.9(바깥쪽)cm에 이르는, 마치 銅鏡의 外緣에 해당되는 부분에 폭 2.4cm의 外向 鋸齒文帶가 돌고 있을 뿐이고 中央部는 圓形으로 돌아가는 朱漆 띠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손상되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주변부의 문양 간격이 매우 촘촘하고, 朱漆 부분보다 특히 이 촘촘한 문양 부분의 漆膜이 얇아 파손이 더 심한 점을 보면 中央部에도 지금 남아있는 朱漆 띠 안쪽과 바깥쪽에 文樣帶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中央部의 文樣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힘들지만 남아있는 朱漆 원형띠의 위치나 크기, 그리고 漆器①의 예로 보아 뾰족한 끝이 中心으로 모아지는 鋸齒文帶가 현재 반만 남은 朱漆 원형띠 안쪽으로 반경 1.8cm 범위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서 朱漆 원형띠(폭 1.3cm)를 사이에 두고 밖으로도 鋸齒文帶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文樣帶 밖으로는 더 이상의 문양이 없고 朱漆部만 이어지는데 1.8cm 폭의 이 朱漆部는 0.8cm(안쪽)와 1.0cm(바깥쪽)씩의 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상과 같은 文樣帶를 통해 漆器②를 復元해 보면 中央部 2組의 推定文樣帶는 편평한 바닥을 이루며, 현재 남아있는 鋸齒文帶가 시작되는 곳에서 바닥이 끝나고 몸체로 이어지면서 약 30°~40° 경사로 壁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점차 급격하게 경사져서 鋸齒文의 끝에서 0.8cm에 이르는 朱漆 部分은 거의 수직으로 올라오다가 90°로 꺾여 폭 1cm의 수평 口脣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圖化하면 〈그림 9〉와 같다. 復元直徑 약 17.2cm, 길이 약 2.5cm로 추정된다.

4) 關野貞外, 『樂浪郡時代の遺跡』, 朝鮮總督府 古蹟調査特別報告 第四册(圖版上册), 1925, p.82.
5) 小場恒吉·鎌本龜次郎, 『樂浪王光墓』, 朝鮮古蹟研究會, 1935, p.27 및 圖版 47.

(3) 漆器 ③(사진 9)

동남 모서리에 軟質土器 1點과 나란히 놓여있던 것이다. 木心部는 전혀 남아있지 않고 내면에 발라진 朱漆 皮膜과 외면의 黑漆 皮膜만 남은 것인데 그나마 수많은 파편으로 분해되어 전체 복원은 불가능하다. 현장 발굴시에는 口脣部 일부가 확인되면서 전체적으로 직경 약 23cm 크기의 圓形 그릇으로 추정되었는데 워낙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실내에서의 정밀 작업으로도 전모를 밝혀낼 수 없었다. 보존처리가 끝난 상태에서는 전체를 평면으로 펼쳐 놓아서 현재는 직경 29cm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장에서 확인된 口脣 직경이 23cm 가량 되었으므로 나머지 부분이 그릇 양쪽의 몸체가 되면 전체 높이는 3cm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그릇이었을 것이다. 木心部가 전혀 남아있지 않고 특별한 文樣帶가 없이 그릇 내부 전면에 똑같은 朱漆을 하였기때문에 세부적인 형체를 추정하기는 불가능하지만 漆器①과 유사한 盤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4) 漆器 ④(그림 10, 사진 10·11)

西北 모서리에서 출토된 것이다. 漆器①·③과 같이 윤곽이 드러났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漆膜이 확인되어 발굴보고서에는 圓形의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復元 결과 長方形을 띠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木心部가 전혀 없고 크게 훼손된 漆皮膜만 남아있을 뿐이어서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하다.

漆은 黑褐色을 內部 바닥과 外面에 칠하였고 朱色은 內壁에만 칠하였는데, 內部 바닥면 양쪽 모서리의 긴 부분에는 옅은 灰褐色으로 두께 5mm의 線을 1개씩 넣은 다음, 그 두 선을 연결하면서 바닥을 가로지르는 線들을 그어놓았다. 이 짧은 연결선은 2線1組를 이루면서 5組가 있고, 各組 사이의 간격은 2.9~3.3cm, 2線 사이의 간격은 0.9~1.1cm이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몸체는 바닥 형태와 같이 直四角形을 띨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높이는 알 수 없고 朱漆皮膜이 약 3cm 폭으로 남아 있어 대강을 짐작할 뿐이다. 길이 약 23cm, 폭 약 17cm, 높이 약 3cm로 추정된다.

(5) 漆器 ⑤(그림 11, 사진 12)

東南쪽 모서리의 漆器③보다 약간 안쪽에서 출토된 것이다. 漆膜과 함께 木心部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지만 전체를 復元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일부분이어서 원래부터 파손된 상태에서 부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현장 발굴시 두 부분으로 분리된채 노출되었는데 보존처리 결과 큰 파편은 楕圓形 그릇의 한쪽 바닥에 해당하는 것임이 밝혀졌고, 작은 파편은 역시 바닥의 일부로 추정되지만 깨어진 면이나 文樣에 있어 큰 파편과 직접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출토상황으로 미루어서는 역시 동일한 그릇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릇의 형태는 楕圓形의 耳杯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사진 13·14 참조).

漆은 內外面 모두 朱漆인데 큰 파편 내부에는 크게 훼손된 朱漆이 있을 뿐 문양은 없고, 작은 파편에는 朱漆 바탕에 黑漆文樣이 있다. 文樣은 파편의 中央을 가로지르는 가는 線을 중심으로

각각 0.7cm씩 떨어진 곳에 한쪽에는 약 4mm 간격으로 바깥을 향한 鋸齒文帶가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는 雷文 또는 鋸齒文에서 변화한듯한 齒車文(또는 直角波狀文)이 施文되어 있다.
크기는 바닥 부분의 長徑이 약 18cm, 短徑이 약 11cm로 추정되므로 그릇 벽이 약간씩 벌어지면서 올라온다면 전체적으로는 長徑 25cm 이상되는 耳杯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以上, 보존처리가 끝난 5點의 漆器에 대해 形態·文樣·規模 등을 살펴보았는데, 木質部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漆器는 모두 香나무로 木心을 만든 것이다. 漆은 모두 內外面에 바르고 있는데 漆의 종류·시문방법·문양 등이 각각 달라서 이들은 정리해 보면 〈表 ①〉과 같다. 文樣 自體의 色은 漆器④만 옅은 灰褐色이고 나머지는 黑色인 점이 공통적이다. 器形에 있어서는 盤·盌이 주류이면서 耳杯도 있고, 文樣에 있어서는 鋸齒文 위주의 직선적이고 도식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 施文方法은 樂浪 漆器처럼 黑色 바탕의 朱漆文이거나 朱漆 바탕의 黑漆文 등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으로 바탕면 위에 직접 문양을 넣은 것이 아니라, 먼저 바탕면을 칠하고 文樣을 제외한 주변 바탕면 위에 다른 색을 배경으로 넣어 줌으로써 바탕색 자체가 그대로 문양으로 남는 독특한 방법을 쓰고 있다.

**〈表 1〉 石村洞 大形土壙墓 出土 漆器 集成表**

| | 規 模 cm | 內面漆 | 外面漆 | 文 樣 | 推定形態 |
|---|---|---|---|---|---|
| 漆器 ① | 口徑 약 40<br>底徑 32.4<br>高 4.7 以下 | 黑漆바탕에 朱漆 | 黑漆 | 黑色鋸齒文帶 | 錚盤 |
| 漆器 ② | 口徑 17.2<br>高 2.5 | 黑漆바탕에 朱漆 | 黑漆 | 黑色鋸齒文帶 | 盤 |
| 漆器 ③ | 口徑 약 23<br>高 3 以下 | 朱漆 | 黑漆 | 없음 | 盤 |
| 漆器 ④ | 長 약 23<br>幅 약 17<br>高 약 3 | 바닥 黑漆<br>벽 朱漆 | 黑漆 | 옅은 灰褐色<br>縱·橫線帶 | 四角盤? |
| 漆器 ⑤ | 長徑 약 25 | 朱漆 | 朱漆 | 黑色 鋸齒文帶와<br>齒車文 | 耳杯 |

## Ⅲ. 中國漆器와의 關係

### 1. 中國漆器의 起源과 變遷 槪要

漆器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고급 手工藝品으로서 漆나무에서 얻어지는 汁에 木炭·鉛粉·石黃 등의 發色劑를 첨가하여 色을 낸 다음, 木心·布心·籃胎·皮胎와 같이

織物·木質·皮革 등의 바탕에 여러차례 칠하고 文樣을 넣으므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오늘날 漆은 越南北部와 中國 福建省·四川省에서 많이 생산되고, 그 밖에 韓國·日本·印度 등지에서도 생산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全北南原郡山內面과 慶南咸陽郡馬川面 등 智異山 일대에서 많이 산출되고 있다.[6]

칠기제작은 中國에서는 늦어도 商代부터는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最古의 例는 河北省 藁城縣 臺西村에서 출토된 商代 中期의 盤과 盒이다.[7] 周代와 戰國時代에는 급속한 발전으로 靑銅器를 대체해 가기 시작하였고, 漢代에 이르러 全盛을 이루었다.[8] 周代의 대표적인 유적에는 河南省 洛陽 龐家溝·陝西省 長安縣 普渡村이 있고, 戰國時代의 대표적인 유적에는 河南省 長沙·洛陽·信陽, 湖北省 江陵, 四川省 成都 등이 있으며, 漢代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河南省 長沙·洛陽, 山東省 文登, 嘈江省 苧波, 廣東省 廣州, 貴州省 淸眞, 甘肅省 武威, 蒙古 諸音烏拉, 韓國 平壤 등이 있다.[9] 그 중에서도 평양 일대의 樂浪古墳 출토 漆器는 다양한 機種·文樣·銘文 등에 있어 漢代 漆器의 독보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漢代에 절정에 달했던 漆器는 魏晋以後 점차 쇠퇴하는데 그 까닭은 실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耳杯와 盤·盌 등이 점차 陶磁器로 대치되기 때문이었다.[10] 그러나 漆器 自體는 완전 소멸되지는 않고 唐代부터는 새로운 제작법에 의한 剔紅漆器가 시작되어 花盆·花甁·果盒·箱匣 등 관상용으로 쓰였고 宋代에는 보다 정교하고 높은 예술성을 갖춘 剔紅漆器로 발전하여 明·淸代로 이어졌다.[11]

中國漆器는 그 器種에 있어 대표적인 것이 耳杯인데, 耳杯는 이미 周代로부터 시작되어 漢代까지 성행하였고 기타 盒·壺·盌·盤·高杯·杓·奩 등의 생활용기와 喪葬用具·樂器·兵器 등이 시대 변천과 함께 다양화되었다. 문양은 流雲文·渦文·菱形文·人物文·動物文·花草文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彩陶 文樣이나 靑銅器 文樣을 바탕으로 하여 周·戰國·漢으로 이어지면서 복잡·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 石村洞 土壙墓 出土 漆器의 性格

石村洞出土 漆器는 형태에 있어서 大同江流域 木槨墓 출토품과 큰 차이가 없이 耳杯·盤·盌 등으로 추정되고, 兩地域의 漆器 出土 遺構는 土壙墓系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칠기와 공반되는 토기 역시 後述하겠지만 서로 이어지는 면이 많기 때문에 兩者는 문화적으로 상당한 연관성을 가

6) 金鍾太, 『漆器工藝論』, 一志社, pp. 24～28.
7) 河北省博物館 外, 「河北藁城縣臺西村商代遺址 1973年 重要發掘」, 『文物』 1974－8, p. 47.
8) 王仲殊, 『漢代考古學槪說』, 北京, 1984, p. 51.
9) 同上書, pp. 43～44.
10) 金鍾太, 『漆器工藝論』, 一志社, 1977, p. 126.
王仲殊, 『漢代考古學槪說』, 北京, 1984, p. 51.
11) 金鍾太, 同上書, p. 121.
'剔紅이란 胎위에 堆漆을 두껍게 한 다음 칼을 사용하여 紋樣을 刻出한 것으로…(중략)…제거한 漆色의 朱漆이기 때문에 보통 剔紅이라 부른다'.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大同江流域의 漆器는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1세기에 걸치는 것인 반면 石村洞의 漆器는 얼마간 늦을 것으로 판단된다.

大同江流域에서 출토된 漆器 중에는 紀年銘이 있는 것이 많아서 그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원전 85년에서 기원후 102년에 걸치는 木槨墓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이중에서도 늦은 단계인 기원 1세기의 유물들을 보면 대개 灰白色軟質壺와 花盆形土器가 셋트를 이루면서(사진 18·19) 鐵器와 內行花文鏡·TLV鏡 등과 공반되고 있다. 이러한 樂浪 木槨墓期는 우리나라에서는 初期鐵器時代 末期 혹은 原三國時代 初期로서 細形銅劍이 尙存하고, 土器는 斷面三角形의 粘土帶土器·뿔모양손잡이土器 등이면서 영남지역에서는 새로 瓦質土器가 출현하는 시기이다. 이에 반해 石村洞 土壙墓에서는 銅劍類·漢式鏡의 不在는 且置하고라도 繩蓆文이 시문된 硬質系의 壺形土器와 灰白色 혹은 灰黑色의 軟質短頸壺·風納里式粗質有文土器 등 다음 단계의 土器들(그림 12, 사진 20~25)이 나오고 있어서 大同江流域 木槨墓와는 명백한 時期差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漆器가 나온 石村洞의 大形土壙墓에서는 口緣이 약간 外反되고 높이가 낮으며 圓底 대신 抹角平底나 넓은 平底의 短頸壺가 위주가 되고 있어서 大同江流域의 木槨墓 出土品인 軟質의 壺形이나 花盆形土器보다는 늦은 면을 보여주면서, 直立口緣에 球形 혹은 偏球形의 胴體가 달리고 胴體 어깨에는 中國 吳·西晋~六朝 초기 土器에서 성행한 것과 같은 文樣帶가 돌아가는 百濟初期의 대표적인 直立短頸壺(사진 26)보다는 始原的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연대는 大同江流域의 木槨墓와 전형적인 百濟初期토기가 출토되는 石村洞3号墳 동쪽古墳群의 中層 土壙墓와의 중간에 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中層에서는 肩文帶 短頸壺의 年代 上限이 3세기 중반 경이고[22] 夢村土城에서 西晋代 3세기 후반경의 錢文陶片이 나오는 점[23] 등을 생각할 때 肩文帶 短頸壺가 나오는 石村洞 中層土壙墓의 시작 연대는 일단 300년 경이라고 보아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層位的으로 앞서는 下層이고, 遺構 자체도 中層보다 깊으며, 中層에서 흔히 보는 순수 토광이나 木板이 아닌 木棺을 사용하는 점 등에서 漆器 出土 下層土壙墓의 연대는 얼마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石村洞 出土 漆器는 크게 大同江流域의 木槨墓와 이어지면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문양·시문방법 등 세부적으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兩地域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즉 대동강 유역에서는 王光墓出土 상자 뚜껑의 鋸齒文(사진 15·16·

12) 小場恒吉外, 『樂浪漢墓』 第1册, 1974, pp. 35~38.
13) 社會科學院 考古學硏究所, 『考古學資料集』 5, 1978, p. 25.
14) 藤田亮策 外, 『古蹟調査槪報』(昭和八年度 樂浪古墳), 朝鮮古蹟硏究會, 1936, p. 27.
15) 社會科學院考古學硏究所, 『考古學資料集』 6, 1983, p. 23.
16) 同上書, p. 34.
17) 關野貞 外, 『樂浪群時代の遺蹟』, 朝鮮總督府, 1927, p. 95
18) 小泉顯夫·澤後一, 『樂浪彩篋塚』, 朝鮮古蹟硏究會, 1934, p. 83.
19) 註 15) pp. 77~78.
20) 註 15) p. 34.
21) 王仲殊, 『漢代考古學槪說』, 北京, 1984, p. 51.
22) 中國硅酸鹽學會 編, 『中國陶磁史』, 科學出版社, 1982.
23) 夢村土城發掘調査團,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 1985, p. 140.

〈表 2〉 大同江流域 木槨墓 出土 紀年銘 漆器例

| | 漆 器 | 記 年 銘 | 年 代 | 備 考 | 註 |
|---|---|---|---|---|---|
| 石 岩 里 | 耳 杯 | 始元 二年 | 85B.C | 元始 三年(3B.C.)銘 漆杯 共伴 | 12) |
| 貞柏洞 37號墳 | 匣 | 地節 四年 | 66B.C | | 13) |
| 貞柏洞 17號墳 | 耳 杯 | 永光 元年 | 43B.C | | 14) |
| 貞柏洞 2號墳 | 日 傘 대 | 永始 三年 | 14B.C | | 15) |
| 貞梧洞 1號墳 | 耳 杯 | 元始 五年 | 5A.D | 始元 二年(85B.C.)銘 耳杯 3點 共伴 | 16) |
| 石岩里 9號墳 | 盤 | 居攝 三年 | 8A.D. | | 17) |
| 石岩里 201號墳 | 盤・耳杯 | 居攝 三年 | 8A.D. | 元始 四年(4A.D.)銘 耳杯 共伴 | 18) |
| 貞梧洞 6號墳 | 耳 杯 | 建武 十八年 | 42A.D. | 建武 五年(29A.D.), 建武 七年(31A.D.)銘 耳杯 共伴 | 19) |
| 貞梧洞 4號墳 | 盤 | 永平 十四年 | 71A.D. | | 20) |
| 平 壤 | 耳 杯 | 永元 十四年 | 102A.D. | | 21) |

17)[24]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없이 人物・流雲文 등 繪畫的이고 曲線的인 문양을 넣고 있지만 石村洞에서는 모두 鋸齒文과 같은 直線的이고 圖式化한 문양만을 넣고 있고, 또한 대동강 유역에서는 內朱外黑 바탕 위에 內面에는 黑漆施文, 外面에는 朱漆施文이 보편적이지만 石村洞에서는 內外面 黑漆 위주에 外面에는 文樣이 없고 內面에만 黑漆文樣을 제외한 배경부에 朱漆함으로써 一見 朱漆 바탕에 黑漆文樣을 넣은 것 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이와같은 차이는 단순히 시기적인 차이거나 지역적인 차이라고는 할 수 없고 어떤 다른 이유에서 생기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後述하겠지만 石村洞 土壙墓 보다도 더 늦은 시기의 新羅 積石木槨墳 출토 漆器中에는 樂浪 漆器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시기적・지역적 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石村洞 土壙墓 出土 漆器와 樂浪 木槨墓 出土 漆器와의 樣式 차이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에는 系統上의 차이가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래 우리나라의 漆器는 기원전 108년의 樂浪郡 설치와 함께 보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지만 앞에서 잠깐 지적한 것처럼 그 이전에도 칠기의 존재와 제작법을 알고 있었던 고고학적 증거가 있으며 그것은 다음에서 보듯이 이미 서기전 3세기로 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南城里 石棺墓에서 출토된 漆片으로서 이것은 木蓋에 칠해졌던 것이거나 銅劍의 칼집에 칠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南城里 石棺墓에서는 I式 細形銅劍과 劍把形銅器・防牌形銅

24) 小場恒吉・榧本龜次郎, 『樂浪王光墓』, 朝鮮古蹟研究會, 1935, 圖版, 67.69.
25) 金鍾太, 『漆器工藝論』, 一志社, 1977, p.26.

器·多鈕粗文鏡 등과 함께 斷面 圓形에 가까운 粘土帶土器·黑色土器長頸壺 등이 출토되어 韓國式銅劍期로서는 이른 시기인 서기전 3세기 초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다.[26] 瑞興 泉谷里 石棺墓 出土 漆片[27] 역시 南城里 石棺墓와 거의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보이고, 칼집에 칠을 하는 확실한 예는 平壤 貞柏洞 出土 黑漆 銅戈집[28]과 義昌 茶戶里 출토 銅劍집을 들 수 있다. 義昌 茶戶里의 경우 아직 출토 유물의 보존처리와 정식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성격 파악이 어렵지만 西漢代의 星雲鏡·五銖錢 등의 출토로 미루어 樂浪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원전 1세기 후반의 유적으로 추정되면서도 漆器에 있어서는 同時期의 樂浪 漆器와는 器種을 비롯한 여러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즉 茶戶里에서는 중국계 칠기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耳杯가 전혀 없이 黑漆 高杯 등 오히려 中南部地域 黑色土器類와 器形上 통하는 漆器가 주류를 이루며,[29] 또한 중국계에서 기본을 이루는 朱漆과 繪畫的인 문양이 없다는 점에서도 樂浪 漆器와는 다른 계통의 칠기 제작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 茶戶里 칠기 기술은 樂浪 칠기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원전 2세기 초반의 칼집으로 추정되는 咸平 草浦里 출토 칠기[30] 를 거쳐, 南城里 石棺墓 칠기로 이어져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南城里遺蹟의 연대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기원전 3세기 초까지 잡아 볼 수 있고 이 시기의 중국은 戰國時代末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칠기 사용은 늦어도 戰國時代 末부터라고 해야 할 것인데 칠기 사용이 중국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漆器製作法에 국한된 것이며 漢代 樂浪 이후 耳杯·盤 등의 器種을 동반한 보급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石村洞 土壙墓 출토 칠기는 耳杯·盤 등 기형상으로는 樂浪系로 통하지만 문양·시문법 등에 있어서는 樂浪과는 다른 기존의 칠기 제작법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한편 시기적으로 떨어지지만 慶州의 壺杅塚·金鈴塚·銀鈴塚·飾履塚·138号墳·天馬塚·皇南大塚 등 신라고분에서도 칠기가 출토된 바 있어 칠기 변화 내용을 어느정도 살펴 볼 수 있다. 壺杅塚[31]·銀鈴塚[32]·138号墳[33] 출토품은 소량의 파편들이어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金鈴塚에서 출토된 것은 皿·盤·高杯 기타 用途不明의 漆器類인데(그림 13) 대개 黑漆의 無文樣이지만 간혹 朱漆에 의한 渦文·波文·忍冬文·鳳龍文 등이 있고 八葉의 蓮花文도 보여 佛敎美術의 영향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34] 飾履塚에서 출토된 것은 耳杯·皿·深鉢·盒 등인데(그림 14)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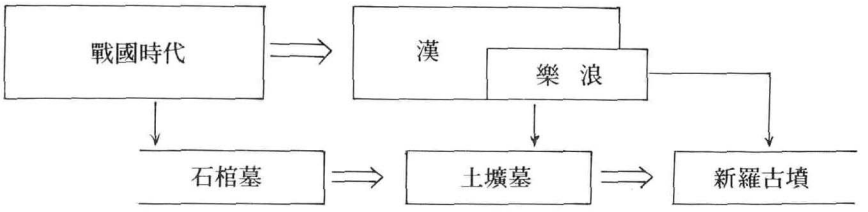
26) 韓炳三·李健茂, 『南城里石棺墓』, 國博古蹟調査報告 10册, 1977, p.5.
27) 백련행, 「천곡리 돌상자 무덤」, 『考古民俗』 66-1, 1966, p.28.
28)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 1卷, 1947, p.20.
29) 李健茂, 「義昌茶戶里遺跡발굴조사개보」, 박물관신문 202호, 1988.6.1.
30) 李健茂·徐聲勳, 『咸平草浦里遺跡』, 國立光州博物館學術叢書 14册, 1988, p.37.
31) 金載元, 『壺杅塚과 銀鈴塚』, 國博古蹟調査報告 1册, 1948, pp.43~46.
32) 同上書, p.56.
33) 金元龍, 「一三八号墳調査報告」, 『雙床塚·馬塚·一三八号墳』, 國博古蹟調査報告 2册, 1955, pp.55~56.
34) 梅原末治,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1册, 1932, 本文 pp.126~132, 圖版 92~97.

의 대부분 內外面 黑漆이고 간혹 內面에는 朱漆을 한 예도 보인다. 문양은 無文인 경우가 많으나 有文인 경우 黑漆 바탕에 朱·黃에 의한 鳳凰文·忍冬文·唐草文 등이 보이고 있다.[35] 天馬塚의 경우 白樺樹皮에 朱·白·黑色으로 그린 天馬圖 이외에 鳥形杯·高杯·角杯·杓子·盞·饌盒·盤 등 수십점의 漆器들이 나오고 있는데 內外面 黑漆과 內朱外黑漆로 갈라지며 唐草·火焰·鳳凰·蓮辨·連珠文 등이 시문되어 있다.[36] 皇南大塚 北墳에서는 30여개분의 漆器가 출토되었으나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耳杯·饌盒·盞 등인데, 木心 혹은 籃胎에 外黑內朱漆을 하고 外部 黑漆面에 朱·黃 등으로 鳥·獸·花·唐草·火焰·鋸齒·格子·珠文 등을 복합시켜 시문하였다.[37]

따라서 신라고분 출토 칠기류는 일부 內朱外黑의 바탕 漆과 다양한 문양, 耳杯·盤 등의 器種에 있어 樂浪 漆器와 상통한다고 하겠으나 內外面 黑漆의 無文樣이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義昌 茶戶里와 같은 기존의 칠기 제작 수법에 樂浪으로 이어지는 漢代 器種과 문양이 가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多樣한 器種과 多樣한 文樣은 茶戶里나 石村洞 출토 漆器와의 시간적인 격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 Ⅳ. 맺 음 말

지금까지 石村洞 土壙墓에서 出土된 漆器類가 器種에 있어서는 樂浪系 漆器類와 이어지지만, 문양·시문방법 등에 있어서는 樂浪 以後의 傳統 漆器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樂浪 이전의 전통칠기라 함은 石村洞에서 義昌 茶戶里·咸平 草浦里를 거쳐 서기전 3세기초의 牙山 南城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과 同時期의 中國 戰國時代 漆器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추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는 종래 樂浪郡 설치와 더불어 보급되었을 것으로 인식되었던 우리나라의 漆器가 그보다 앞선 시기, 늦어도 戰國時代 末부터는 시작되어 맥을 이어 오다가 樂浪 이후 器種·文樣 등이 첨가되어 古新羅로 이어졌음을 지적할 뿐이고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表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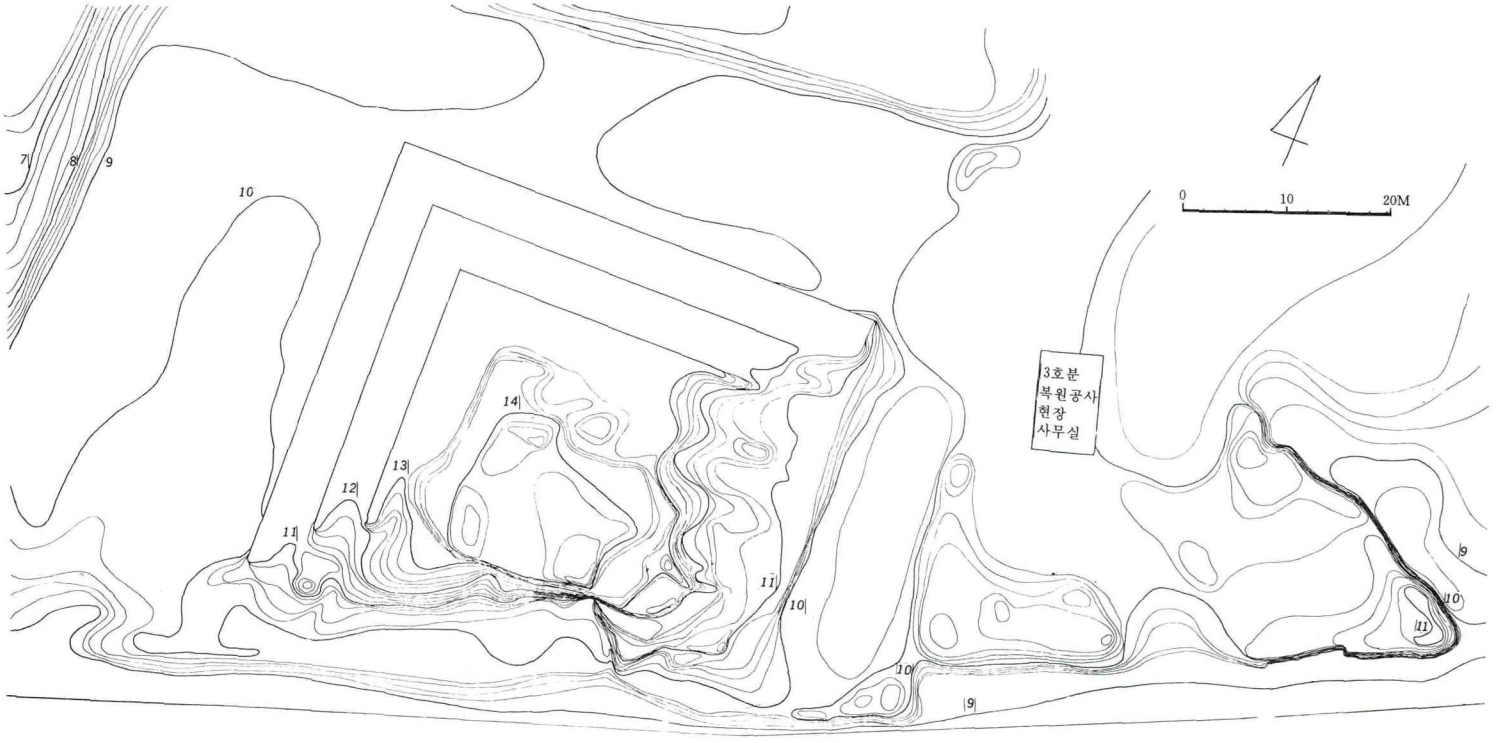

〈表 3〉 韓國漆器系統推定圖

35) 同上書, 本文 pp. 235~240, 圖版 188~192.
36) 文化財硏究所, 『天馬塚』, 1974, pp. 146~158.
37) 文化財硏究所,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査報告書』, 1985, p.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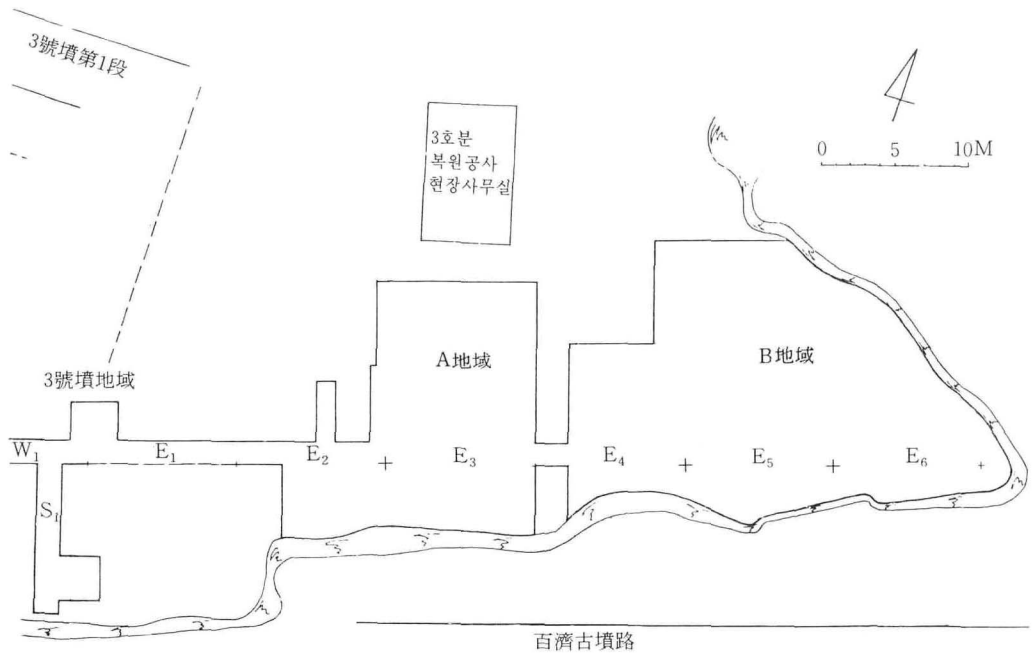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4세기 이후에는 왜 신라고분에서만 칠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일단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중국의 칠기는 漢 이후 六朝時代로 들어오면서 陶磁器의 증가와 함께 쇠퇴하게 되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는데,[38] 六朝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百濟에서는 原城郡 法泉里[39]·石村洞 古墳群[40]·夢村土城[41]·天原郡 花城里[42]·武寧王陵[43] 등지에서 출토된 磁器類가 시사하는 바 중국과 동일한 맥락에서 漆器의 명맥이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반면 六朝와 깊은 교류가 없었던 新羅에서는 磁器類의 사용이 활발하지 못하여 종래의 칠기 제작이 지속됨으로써 唐代에는 新羅漆이라 하여 中國에까지 수출되었고[44] 高麗時代 이후 오늘에 이르는 독보적인 螺鈿漆器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1988年 10月에 있었던 震檀學會 주최 제1회 環黃海 韓中交涉史硏究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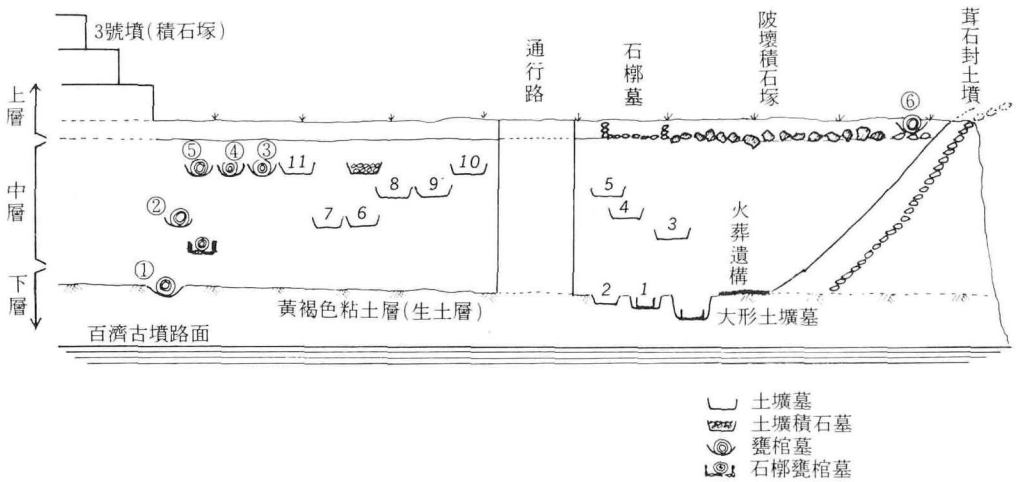
38) 註 10) 참조.
39) 金元龍, 「原城郡 法泉里石槨墓와 出土遺物」, 『考古美術』 120, pp. 4~5.
40) 서울大學校博物館, 『石村洞3号墳(積石塚)復元을 爲한 發掘報告書』(油印), 1984, p. 23.
金元龍·林永珍, 『石村洞3号墳東쪽古墳群整理調査報告』, 서울大學校考古人類學叢刊 12冊, 1986, p. 21.
41) 夢村土城發掘調査團,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 1985, pp. 140~142.
金元龍·任孝宰·林永珍, 『夢村土城東北地區發掘報告』, 1987, p. 67, 157, 160.
42) 三上次男, 「漢江地域發見の四世紀越州窯青磁と初期百濟文化」, 『朝鮮學報』 81, 1976, pp. 357~380.
43) 文化財硏究所, 『武寧王陵』, 1973.
44) 金鍾太, 『漆器工藝論』, 一志社, 1977, p.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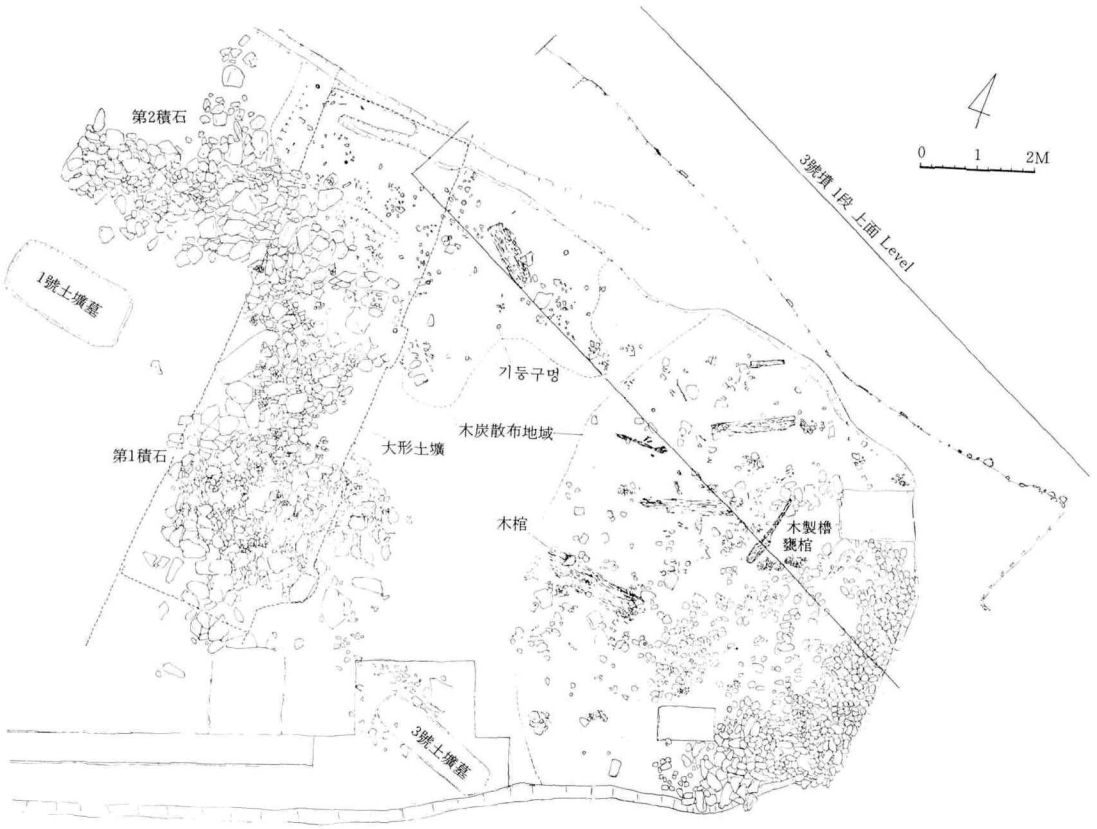

〈그림 1〉 石村洞3號墳一帶 地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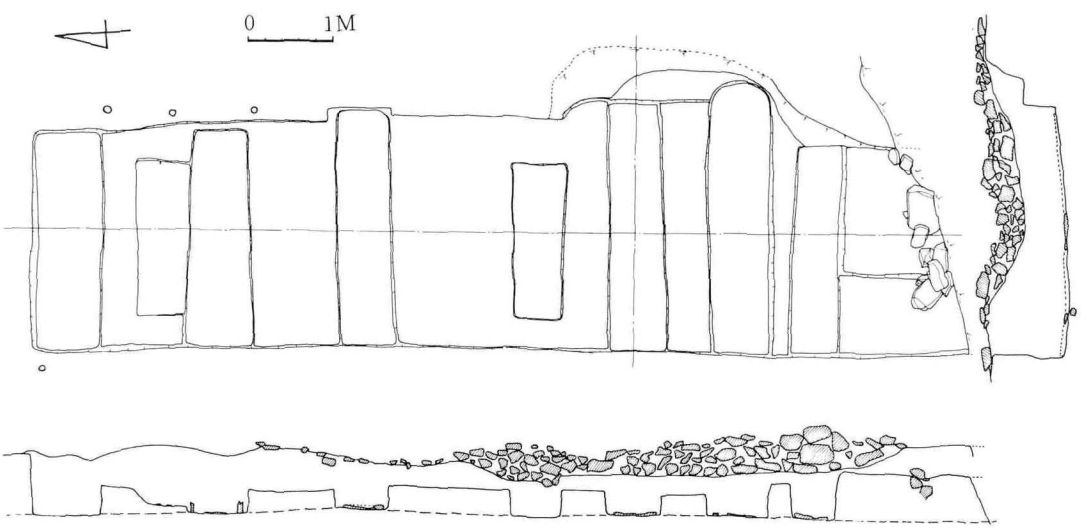

〈그림 2〉 石村洞3號墳 東쪽古墳群 發掘區域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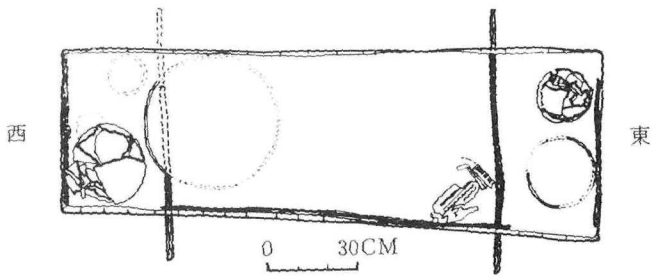

〈그림 3〉 發掘區域 層位 槪念圖




〈그림 4〉 大形土壙墓 周邊 遺構分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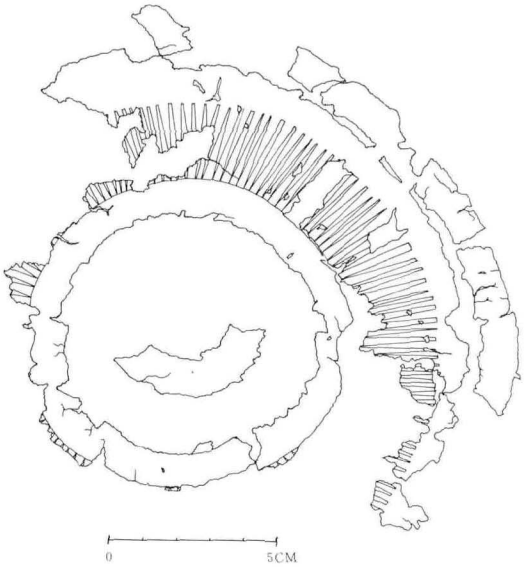



〈그림 5〉 大形土壙墓 平·斷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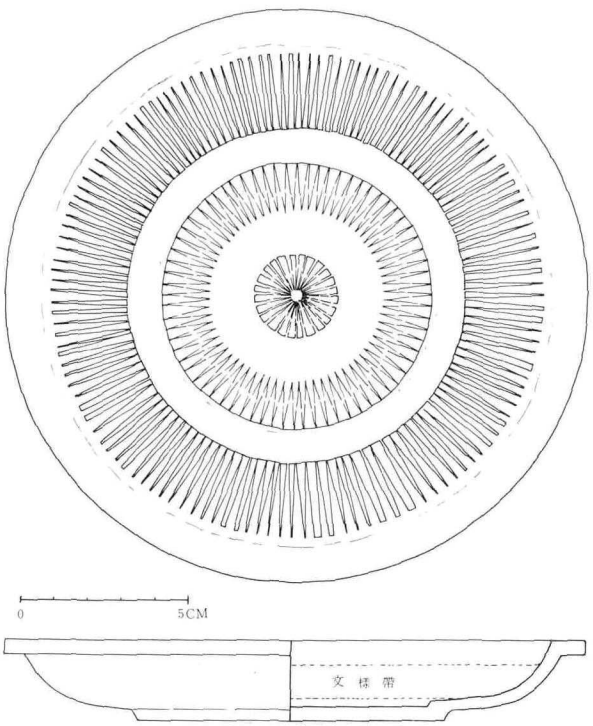



〈그림 6〉 大形土壙墓內 5號木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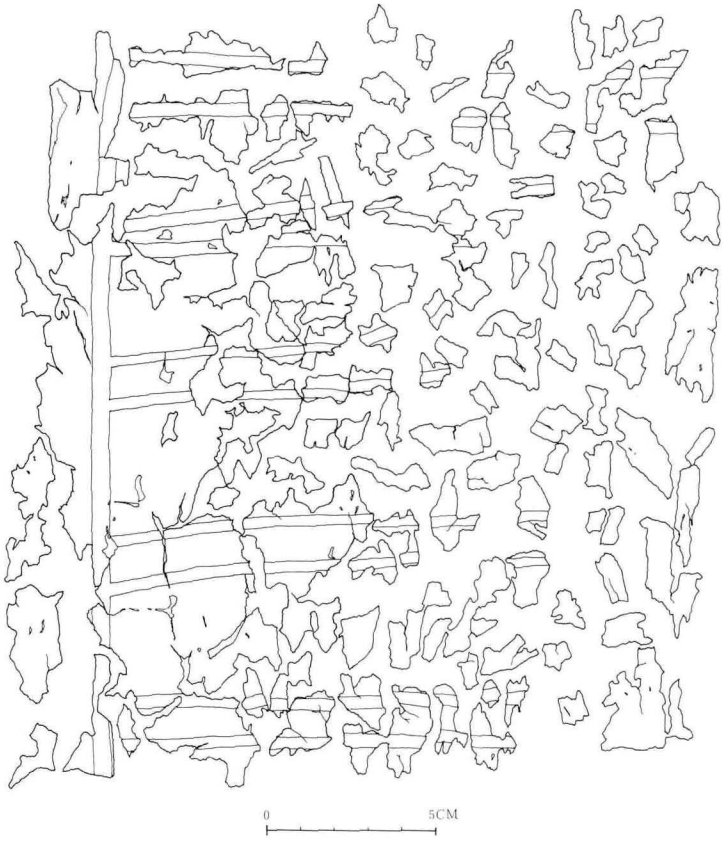
〈그림 7〉 漆器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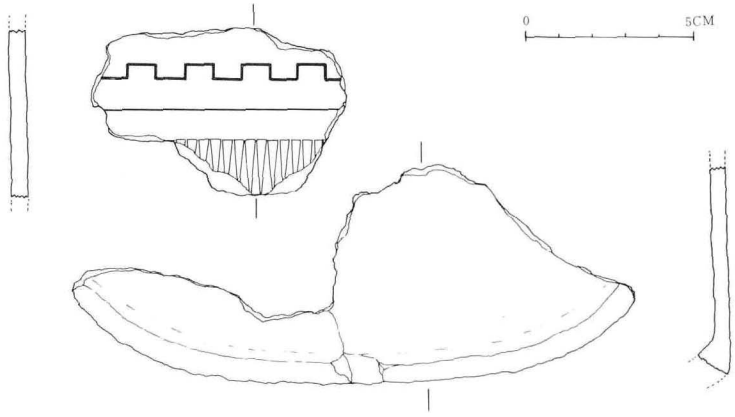

〈그림 8〉 漆器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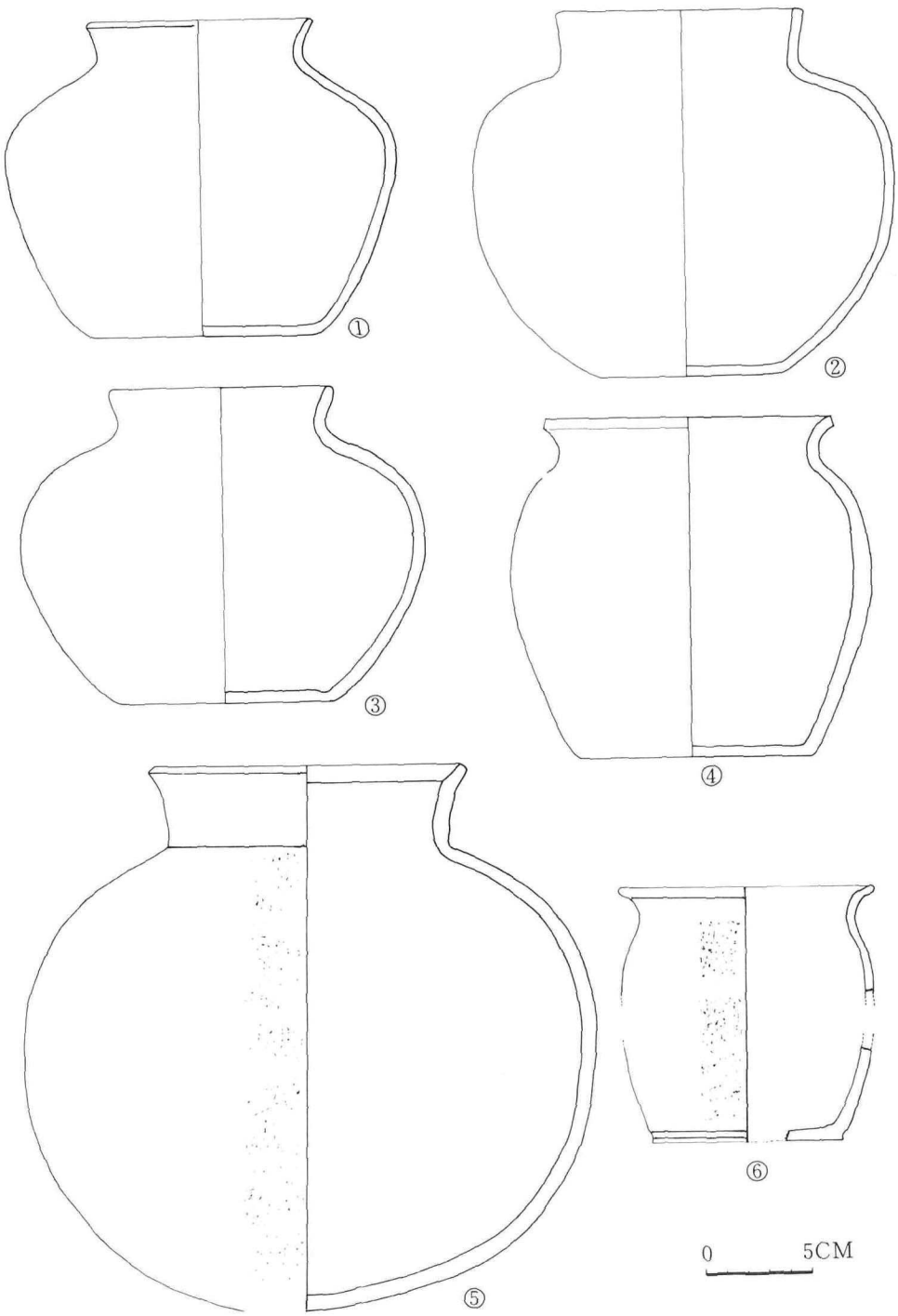

〈그림 9〉 漆器 ② 復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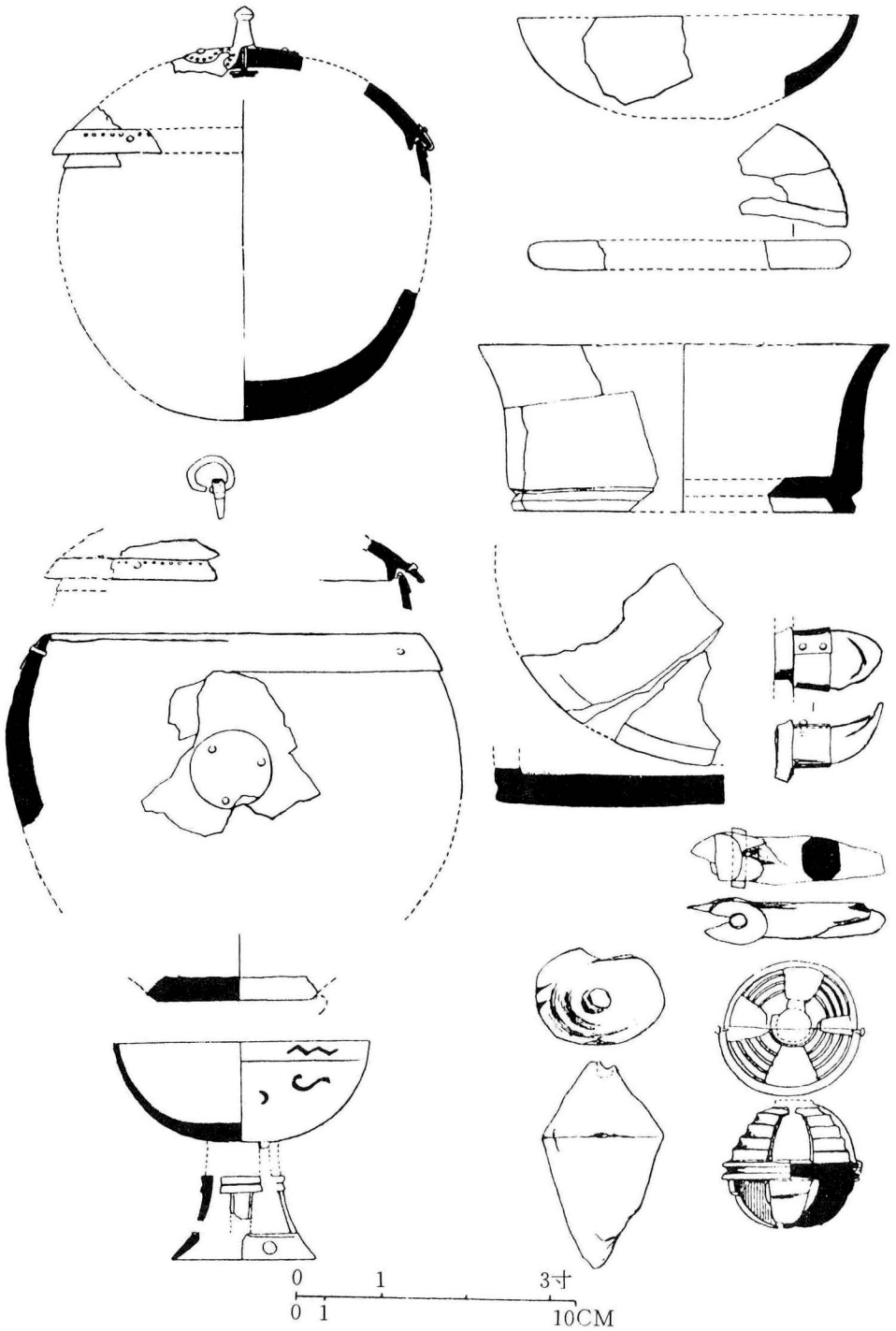

〈그림 10〉 漆器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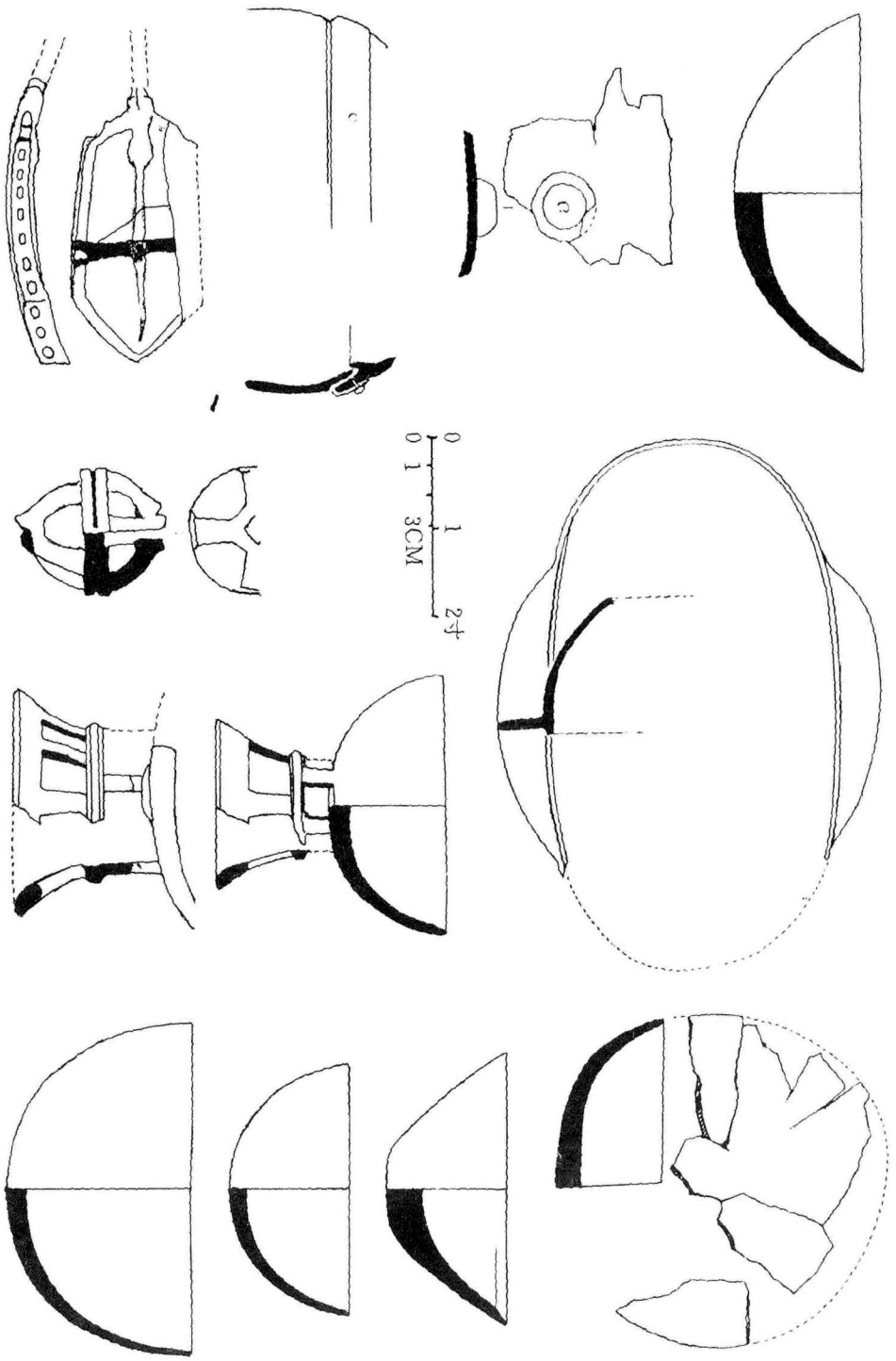

〈그림 11〉 漆器 ⑤




〈그림 12〉 大形土壙墓 3號(①), 4號(②), 5號(③⑤), 7號(④), 8號(⑥) 木棺 出土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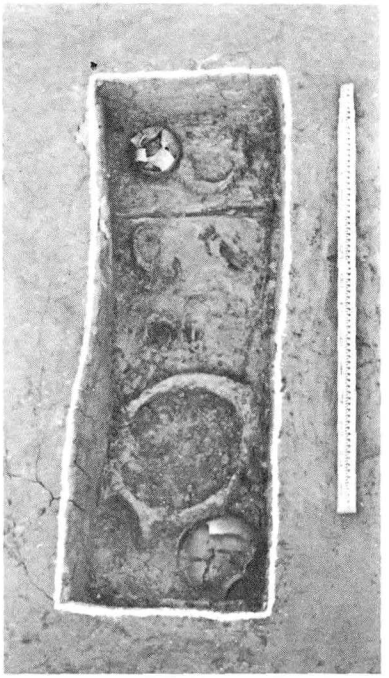



〈그림 13〉 金鈴塚 出土 漆器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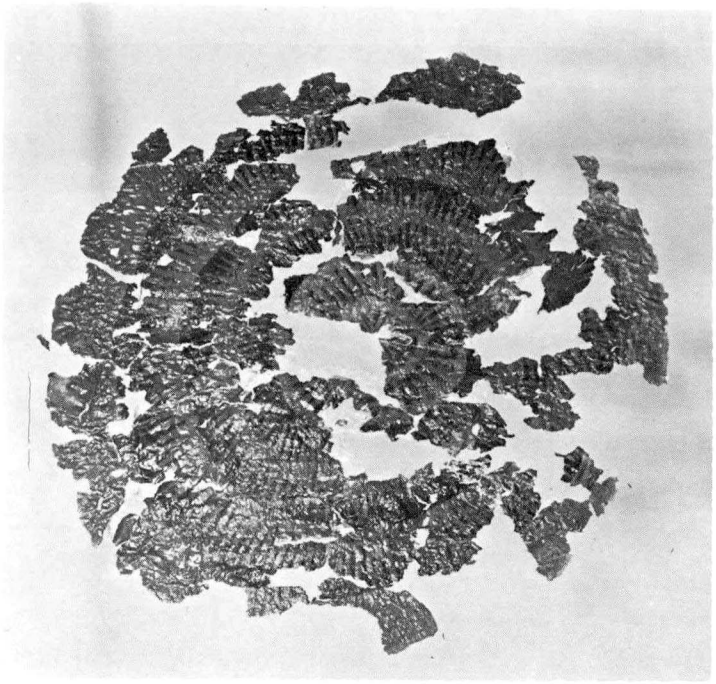



〈그림 14〉 飾履塚出土 漆器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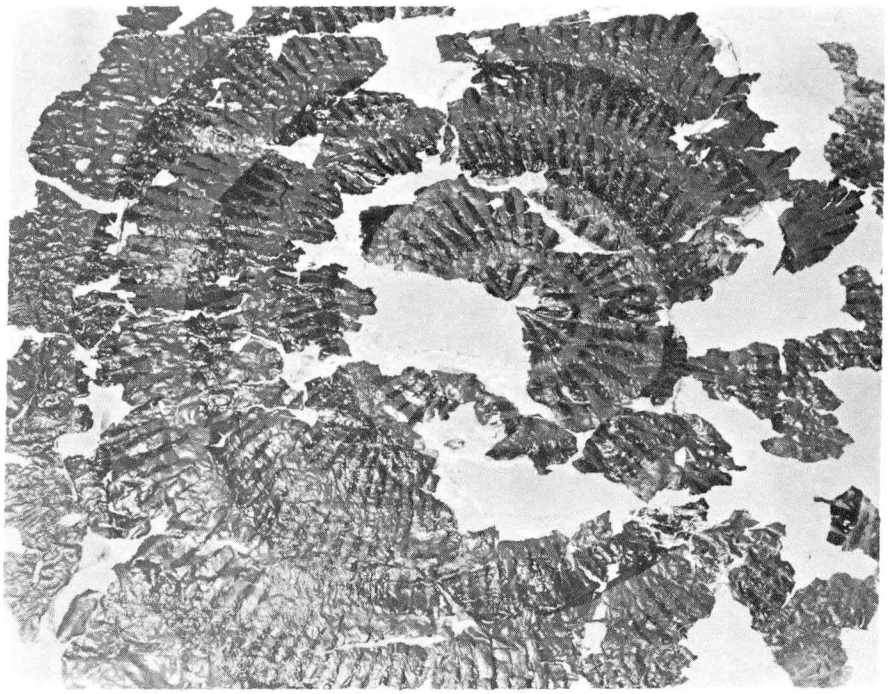
〈사진 1〉 石村洞 3號墳 東쪽
大形土壙墓(南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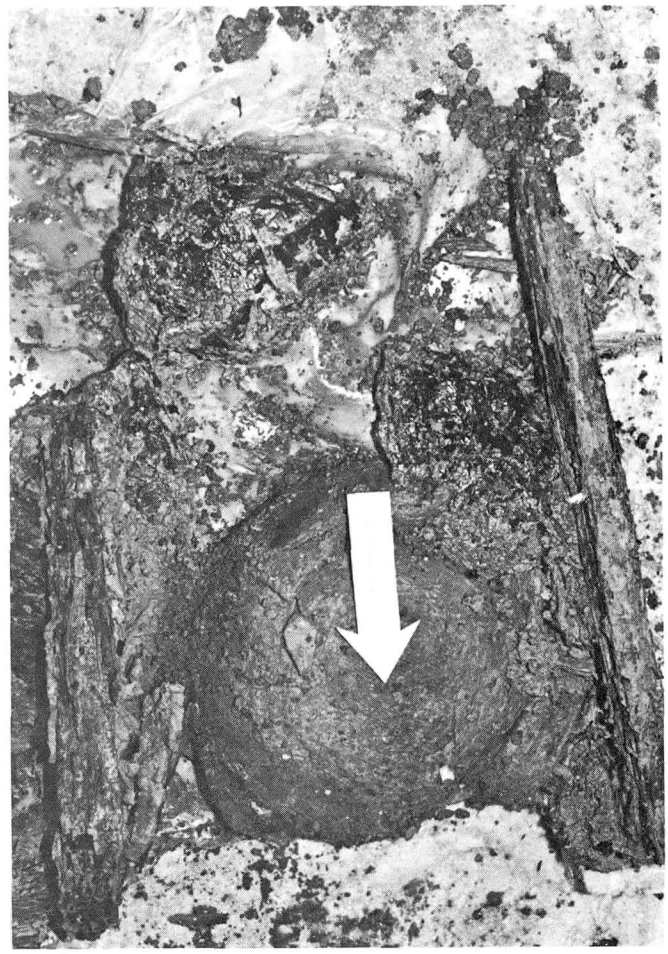
〈사진 2〉 大形土壙墓內 5號木棺
(西에서)



〈사진 3〉 漆器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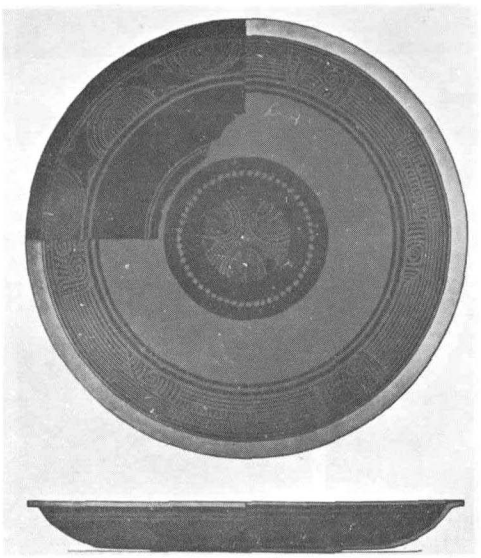


〈사진 4〉 漆器 ① 細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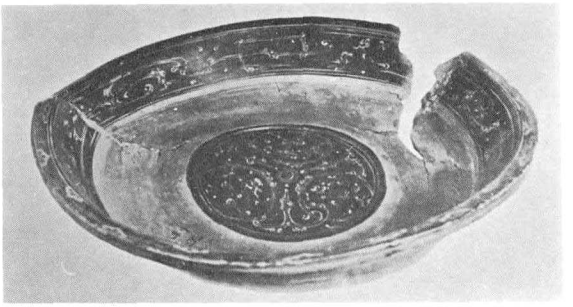


〈사진 5〉 漆器 ②, ④ 出土狀況 (들어낸 木棺을 뒤집어서 바닥부터 흙을 제거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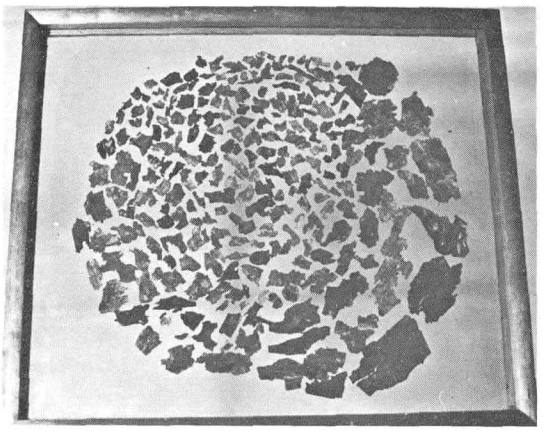
〈사진 6〉 漆器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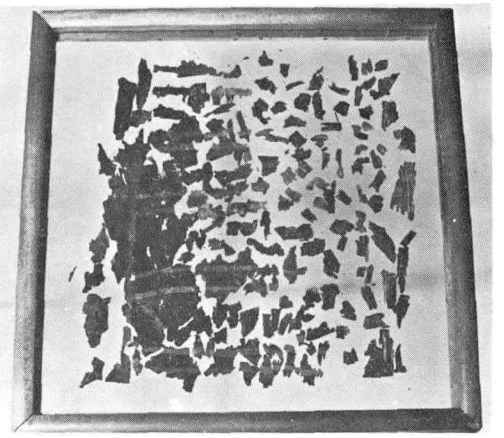
〈사진 7〉 大同江面(貞柏里) 2號墳出土 漆盤復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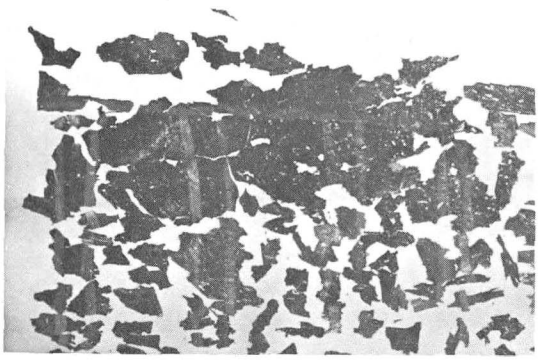
〈사진 8〉 王光墓出土 漆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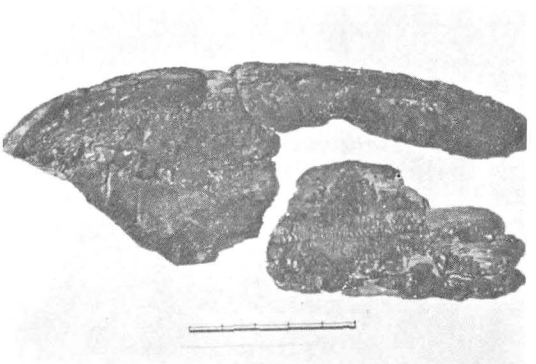
〈사진 9〉 漆器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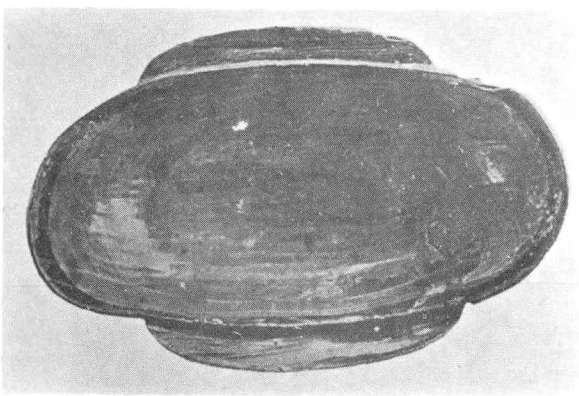
〈사진 10〉 漆器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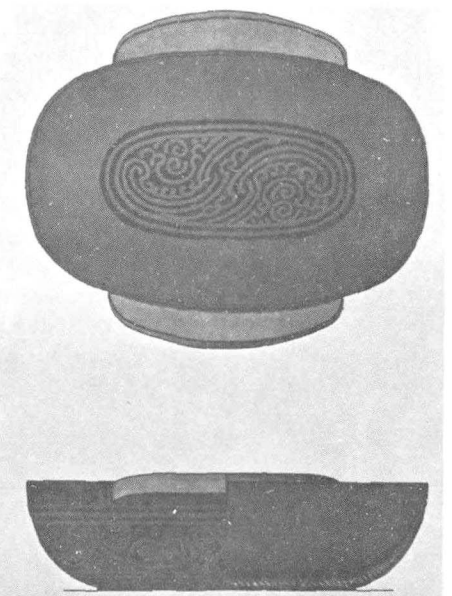
〈사진 11〉 漆器 ④ 細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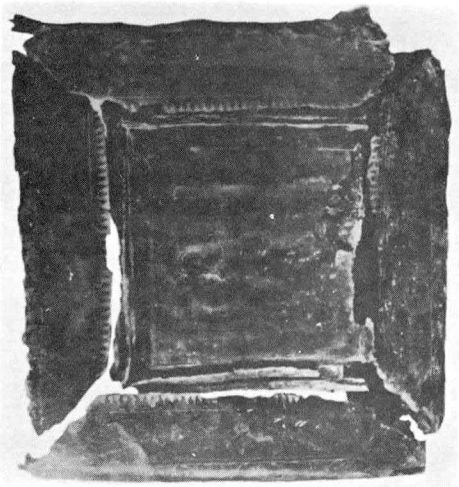
〈사진 12〉 漆器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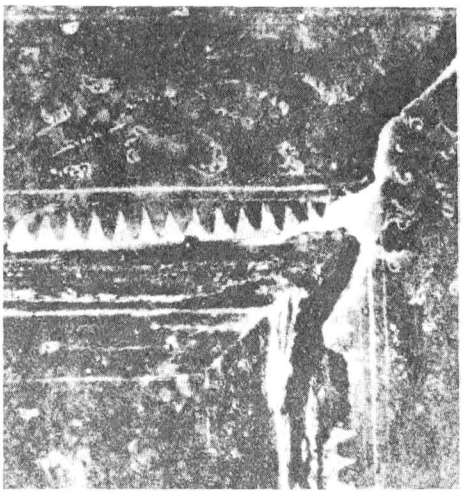
〈사진 13〉 王光墓出土 耳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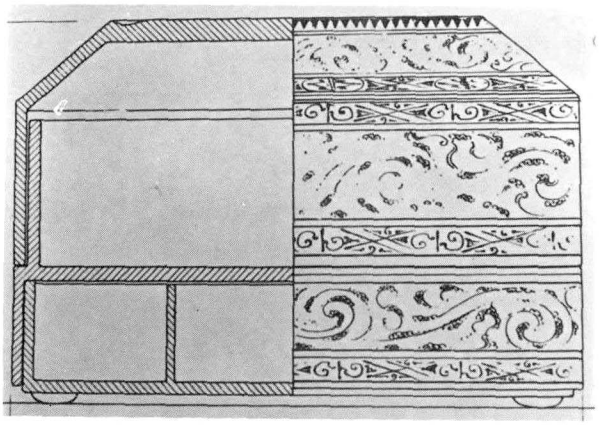
〈사진 14〉 大同江面(貞柏里) 2號墳出土
耳杯復元圖



〈사진 15〉 王光墓出土 方奩蓋



〈사진 16〉 同 細部 鋸齒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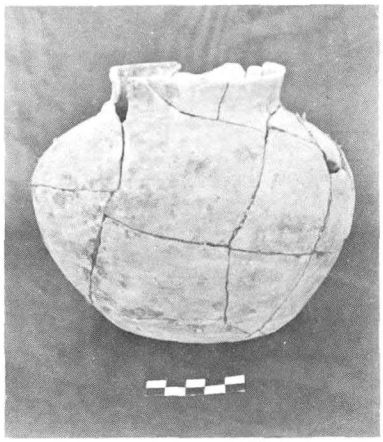
〈사진 17〉 王光墓出土 方奩 復元圖

〈사진 18〉 王光墓出土 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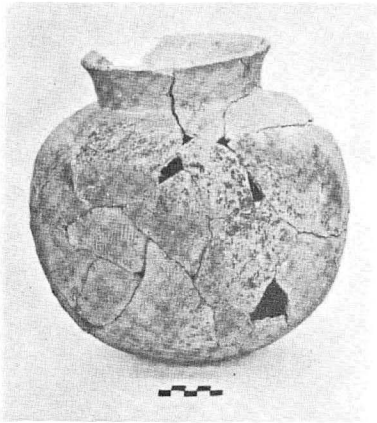
〈사진 19〉 王光墓出土 花盆形土器

〈사진 20〉 第3號木棺出土 短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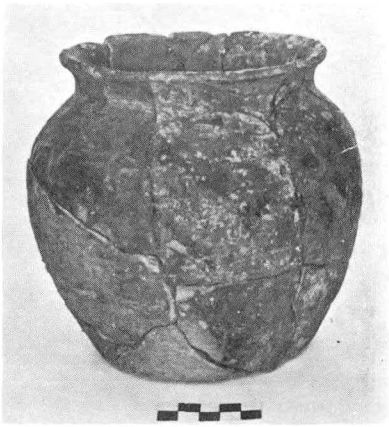
〈사진 21〉 第4號木棺出土 短頸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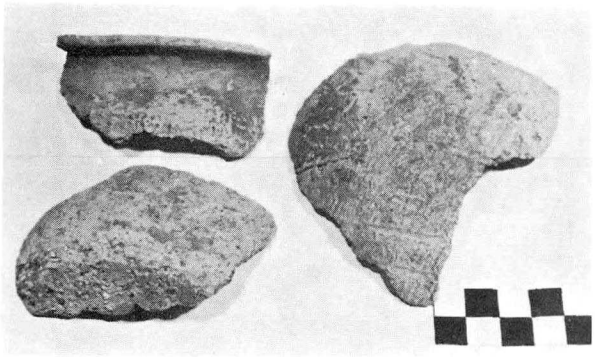
〈사진 22〉 第5號木棺出土 短頸壺



〈사진 23〉 第5號木棺出土 短頸壺



〈사진 24〉 第7號木棺出土 短頸壺



〈사진 25〉 第8號木棺出土 風納里式土器

〈사진 26〉 石村洞3號墳 東쪽 古墳群 中層
第4號土壙墓出土 直立短頸壺